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인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iachoi@kiep.go.kr, 044-414-1049)

장한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hanbyeolj@kiep.go.kr, 044-414-1245)



차 례

1. 머리말
2.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3년 5월 29~30일 한-태평양도서국 간 첫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위한 2023 정상선언을 발표하고, 한-태도국 간 미래 협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담은 행동계획을 발표함.
 -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은 2022년 PIF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과 연계하여, 3대 추진 분야(△회복력 증진 △역량 강화 △연결성 재활성화)로 구성됨.
 - [회복력 증진]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친환경 에너지 △생물 다양성 △산림 협력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 양성 등 태도국의 기후 회복력 증진과 감염병 및 재난 회복력 강화 지원 계획을 밝힘.
 - [역량 강화] 한국은 2027년까지 대태도국 ODA를 두 배 확대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자원 관리 △해양치안 △보건 위험 관리 △농업·지역개발·마을 자조금융 등 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연결성 재활성화] 한국과 태도국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인적·물적·디지털 연결성을 증진하고,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및 외교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것을 약속함.
 -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간 태도국 중 유일하게 비수교국이었던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태평양 지역 내 공관 추가 개설 계획을 밝힘.
- ▶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태도국 10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간 다자협력을 넘어 국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양자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함.
- ▶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기존의 한-태도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기반을 조성함.
 - 한국이 태도국을 한국판 인테 전략의 협력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인테 전략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양측간 협력 비전을 명시한 정상선언과 구체적 사업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한-태도국 협력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 이번 정상회의가 일회성 성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태도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태도국 간 파트너십을 지속·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나가야 함.

1. 머리말

■ 2023년 5월 29~30일 한-태평양도서국 간 첫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한국은 1995년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에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하며 태도국과의 교류를 본격화하고 2011년부터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으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 정상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함.¹⁾

■ 태도국은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통가,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의 총 14개 국가를 일컬으며, 군소도서개발국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 및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한 외교력을 행사해왔음.

- 태도국은 크게 멜라네시아(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피지, 바누아투), 마이크로네시아(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나우루, 마셜제도, 키리바시), 폴리네시아(투발루, 사모아, 통가, 니우에, 쿡제도)의 3개 지역으로 구분됨.
- 규모가 작은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태도국은 △동등한 투표권 행사로 인한 국제사회 내 영향력 △세계 주요 해상 수송로인 태평양 항로가 위치한 지리적 요건 △광대한 규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한 풍부한 해양수산자원 보유로 인해 역내 국가들에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꼽힘.
 - 14개 태도국의 총인구는 약 1,240만 명으로 소말리아(세계 78위)와 비슷한 수준이며, 국토 면적의 합은 약 52만 km²로 태국(세계 58위)과 비슷하고, GDP(PPP)는 약 520억 달러로 세계 175위 정도에 해당함.²⁾
 - 태도국 중 12개 국가가 UN의 군소도서개발도상국에 속해 적지 않은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14%(약 1,910만 km²)를 차지하는 태도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풍부한 해양수산과 심해저 광물자원이 존재해 개발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 본고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고찰하고, 향후 한-태도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PIF 회원국 18개국 중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이 국내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며, 피지는 부총리, 사모아는 천연자원·환경장관, 나우루는 보건의료장관, 호주는 부총리 겸 국방장관, 뉴질랜드는 외무장관이 대참함.

2) CIA 홈페이지, "The World Factbook"(검색일: 2023. 5. 31); 인구수는 2023년 기준, GDP는 2021년 기준임.

2.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요 내용³⁾

가. 다자 정상회의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에 있어 태도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태도국과 함께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진해나갈 것을 밝힘.

- 윤 대통령은 ‘공동 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정상회의를 주재했으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역할과 모든 회원국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힘.
- ‘하나의 푸른 태평양’은 PIF 회원국간 단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원칙 중 하나로, 한국정부는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태도국 중심의 태평양 지역 협력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태도국은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위한 2023 정상선언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 위험과 회복력 △바다, 해양·수산 △인적 교류 및 여타 상호 관심 분야에서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간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한국과 PIF 정상들은 한국의 인태 전략과 태도국의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 간의 접점을 확대해 양측간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갈 것을 약속함.
 -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은 2022년 PIF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PIF의 장기 개발 비전으로, △정치적 리더십과 지역주의 △사람 중심의 개발 △평화와 안보 △자원과 경제개발 △기후변화와 재난 △해양과 환경 △기술과 연결성의 7대 중점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가 증가하는 가운데,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은 태도국간 결속을 바탕으로 태도국 중심의 지역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 한국은 태도국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대태도국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한국과 PIF 정상들은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물론, 역내 디지털 연결성 제고, 감염병·비감염병 대응, 해양환경·자원 관리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또한 한국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및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대한 PIF 정상들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PIF 정상들은 한국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에 환영 의사를 표함.

3) 대한민국 대통령실(2023. 5. 28~29),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6. 1)를 바탕으로 정리.

표 1.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정상선언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개관	1~3항	· 윤석열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회의 공동주재 · ‘공동 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공조 강화방안 논의
한-태도국 파트너십 강화	4~6항	· 한국의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 지지 및 협력 의지 표명 · PIF의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과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접점 확대를 통한 협력 강화
태평양 지역 협력	7~9항	· 규칙 기반 역내 및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해 PIF와 한국 간 연대 및 협력 확대 · 한국의 PIF 및 태평양지역기구협의체(CROP) 역할 인정 및 존중 의사 표명 · PIF 회원국과의 참여 및 협력 확대
평화로운 태평양을 위한 협력	10~15항	· △해양안보 △기후안보 △에너지안보 △사이버안보 △인간안보 △공중 보건 및 초국경안보를 포함한 개발협력 및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 인식 ·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역 기반 조치를 시행하는 태도국의 주권적 권리 인식 · ‘기후변화 관련 해수면 상승으로부터의 해양 수역 보전을 위한 2021년 태평양도서국 포럼 선언’ 지지 ·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접근가능한 사이버 공간 조성, 역내 디지털 연결성과 교육,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사이버 안보협력 강화 · 태도국 내 감염병 및 비감염병 대응을 위한 디지털 헬스,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 및 의료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 한반도 내 비핵화,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태도국의 지속적 지지 표명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을 위한 협력	16~28항	· 태도국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사업 확대 및 2027년까지 대태평양도서국 ODA 규모 2배 증액 · 한-PIF 협력기금 점진적 확대 노력 · 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 · △2023년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의 특별 작업 프로그램에서의 기술적 진전 확인 △2025년 최소 50%의 NCQG를 태도국 적소에 할당, 동원 및 이행에 대비 △새로운 기금마련 방안 운영 촉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보호 및 국가성 문제에 대한 지역 노력 지원 검토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접근성 향상 · UN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관련 협력 지지 · 산림협력 강화 · 해양 환경 모니터링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역내 해양 환경 및 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 국제적인 협의, 국제법, 독립적이고 검증가능한 과학적 평가 보장의 중요성 강조 ·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향한 남태평양 비핵시대 조약의 가치 있는 기여 인정 ·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지원 협력 및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 국민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 구축 · 항공 및 해상 운송 포함 인프라 협력 강화 노력
글로벌 이슈 협력	29~32항	· PIF 정상회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신청 환영 · 한국의 2024~25년 임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 한국의 국제기구 선거 관련 태도국의 지지 요청 · PIF 정상들은 2026년 호주가 태도국들과 함께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는 데 대해 한국의 지지 요청 · PIF 정상들은 마셜제도와 한국의 2025~27년 임기 UN 인권이사회 임후보 의향을 환영
차기 회의	33~34항	·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의 2년 주기 개최 약속 · 이 선언은 각 정부의 권한을 존중하여 작성

자료: 2023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정상선언을 저자 정리.

■ 한국과 태도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태도국 간 미래 협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담은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

-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은 2022년 PIF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과 연계하여 3대 추진 분야(△회복력 증진 △역량 강화 △연결성 재확성화)로 구성됨.
- 이번 행동계획은 사회문화, 인적 개발, 해양수산 협력, 기후변화 대응력, 연결성 증진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를 바탕으로, 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역내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회복력 증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재난 회복력 증진’을 목표로 12개의 행동계획을 발표함.

- [기후 회복력] 한국과 태도국은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친환경 에너지 △생물 다양성 △산림 협력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 양성 등 태도국의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함.
 - [기후변화 및 기후예측 역량 강화] 한국은 △태평양 산호초 국가 이니셔티브(RNI)에 대한 재정적 지원⁴⁾ △한-태도국 기후변화 적응·경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태도국 맞춤형 기후예측 시스템(PICASO)⁵⁾ 개선 및 실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임.
 - [해양수산 관측·분석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 한국은 △태도국의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초역량 강화⁶⁾ △피지 마코가이 수산양식 연구소 재건 △블루카본 관리 등 해양 생태계 복원사업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코스라에주에 생물표본실 설치 및 인력양성 사업 등의 사업 계획을 밝힘.
 - [친환경 에너지 공급] 한국은 태도국의 신재생에너지 접근성 강화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저탄소 수산양식 기술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임.
 - [산림협력 및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 양성] 한국은 맵그로브숲 기술센터 조성을 통해 한국의 산림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국기업의 태도국 산림투자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태도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⁷⁾
- [감염병·재난 회복력] 한국은 △방역 시스템 컨설팅 △재난 안전기술 전수 △해양기상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공간계획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태도국의 감염병 및 재난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감염병] △3T(Testing, Tracing, Treatment)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ODA 컨설팅 제공 △워크스루 선별검사소 및 이동형 진단검사센터 건설 △감염관리 앱 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전문가 육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태도국의 회복력 증진을 지원할 계획임.
 - [재난] △재난위험 최소화를 위한 재난 안전기술 전수 △해양기상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위성원격

4) 태평양 산호초 국가 이니셔티브(RNI)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으로부터 태도국의 국가 지위를 보전하고 태도국 주민들의 권리와 유산을 수호하기 위해 출범함.

5)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후예측 시스템(PICASO: Pacific Island Countries Advanced Seasonal Outlook)은 선진 ICT 기술 및 기후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기후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은 니우에, 마셜제도, 쿡제도, 투발루, 팔라우 5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농업, 수자원 등 기후 민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생산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함.

6)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모아에서 산호초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산성화 관측 고도화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2023년 기준 6억 원 규모 지원)하고, 향후 전체 태도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임.

7) 한-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댐 건설사업(19~24년), 피지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18~24년), 마셜제도 해수온도차 발전사업(23~26년) 등 군소도서국 맞춤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임.

탐사를 통한 연안 데이터 수집 및 태도국 수요에 부합하는 연안공간 개발계획⁸⁾ 수립 지원 등을 통해 태도국의 자연재해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표 2. 회복력 증진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의제	행동계획	주요 내용
기후 회복력 증진	기후변화 협력	· 태평양 산호초 국가 이니셔티브(RNI)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 고려 · '기후변화 관련 해수면 상승으로부터의 해양 수역 보전을 위한 2021년 태평양도서국포럼 선언' 지지 · 한-PIF 기후변화 적응·경감 협력 양해각서 체결
	기후예측 역량 강화	· 한국의 선진 ICT 기술 및 기후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태도국 맞춤형 기후예측 시스템(PICASO) 개선 ·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
	해양·수산 관측 및 분석	· 해양 및 수산 자원 분야 기초역량 향상 지원 ·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초역량 강화 기여
	해양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복원	· 피지 마코가이 수산양식 연구소 재건 · 해양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친환경 에너지 공급	· 태도국의 신재생에너지 접근성 강화사업 지원 · 에너지 사용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 공급 협력 확대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 양성	· 인적 교류를 통한 기후변화대응 강화 협력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역량 강화 · 인적 네트워크 확대 기반 마련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및 표본실 설치	·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확대
감염병·재난 회복력 증진	산림 협력	· 맹그로브 숲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피해 절감 · 산림-타 분야 간 연계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구성해 실질적 주민 생계 개선에 기여 · 산림투자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한국기업의 대태도국 산림투자 진출 지원
	감염병 방역 시스템 건설	· 3T(Testing, Tracing, Treatment) 기반 맞춤형 ODA 컨설팅 제공 · 감염병 대응 인프라 건설 지원 · 감염관리 앱 개발 및 전문가 육성 증진
	재난 안전기술 전수	· 재난 안전기술 이전 · 현지 공무원 및 주민 대상 교육훈련 확대
	해양기상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공간 계획 지원사업	· 해양기상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위성원격 탐사를 통한 연안 데이터 수집, 연안공간 개발계획 수립 지원

자료: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 저자 정리.

■ [역량 강화] '태평양의 역량 강화를 통한 태평양 잠재력 실현'을 위해 18가지 행동계획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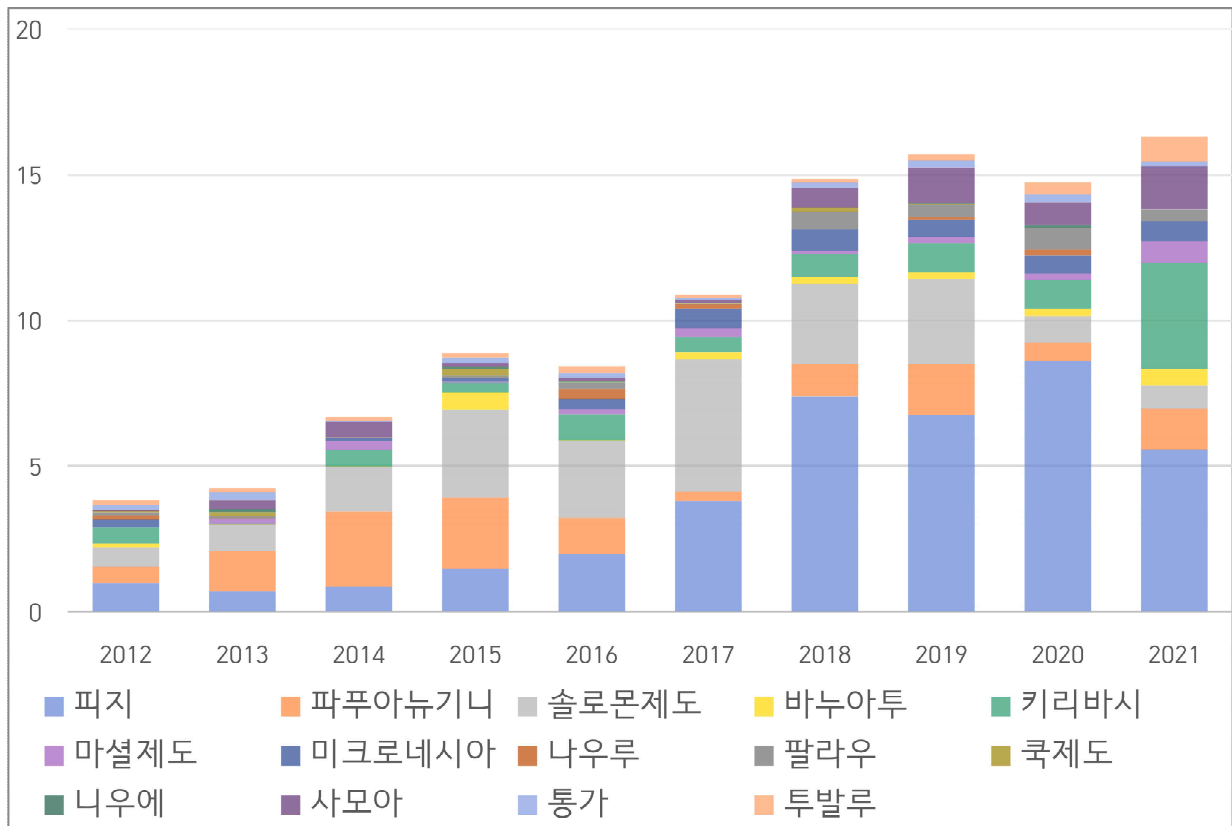
- 한국은 대태도국 ODA를 확대하고 해양, 보건, 농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잠재력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 [ODA 확대] 한국은 대태도국 ODA 및 한-PIF 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8) 위성 원격 탐사를 통한 연안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의 연안공간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안 공동체의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함(21~24년).

- [대태도국 ODA 확대 및 EDCF 협력] 한국은 기존 약 1,500만 달러의 대태도국 ODA 예산을 2027년까지 2배로 증액하고, EDCF를 활용해 파푸아뉴기니 항만 현대화 사업 추진 등 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지속 지원해나갈 것을 밝힘.
- [한-PIF 협력기금 운영 강화] 2008년에 설립된 한-PIF 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시행할 것을 약속함.⁹⁾

그림 1. 한국의 대태도국 ODA 추이(2012~21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CRS.

- [역량 강화] 한국은 선진기술 및 모범사례 전수, 초청사업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태도국 맞춤형 경제정책 모델을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역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역량 강화 △최고위급 해양수산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소규모 어항 건설, 수산시장 리모델링 등 어촌특화 개발사업 추진 △한-피지 해양수산 협력센터 설립 △WTO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 등 태도국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9) 한-PIF 기금은 매년 150만 달러 규모를 기여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불법어업·해양오염 대응 △무역·관광 지원사업 등임(외교부 2022).

- [해양치안] 태도국의 해양치안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해 태도국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임.
- [보건] △한-태도국 보건장관회의 개최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거점 센터 구축 △비대면 진료 등 태도국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 및 ICT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태도국의 보건위험 관리를 지원할 계획임.
- [농업·지역개발·금융] △도서국가의 환경에 맞는 농식품 생산기술 및 유통구조 개선 △새마을운동 초청연수사업¹⁰⁾ 확대 △새마을금고 ODA 사업 확대를 통해 태도국 주민들의 경제역량 제고에 기여할 계획임.

표 3. 역량 강화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의제	행동계획	주요 내용
ODA 확대	대태도국 ODA 확대	· 2027년까지 대태도국 ODA를 2배 증액할 예정
	한-PIF 협력 기금 운영 강화	· 한-PIF 기금의 점진적 확대 ·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과 연계한 사업 발굴 및 시행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협력	· 파푸아뉴기니 항만 현대화 사업 추진 검토 · 고(高)양허성 차관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 지속
역량 강화	경제정책	· 태도국 맞춤형 경제정책 모델 제공
	해양·수산	·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 ·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 관광업 활성화, 어업인 역량 강화 등 통합지원 어촌특화 개발사업 · 한-피지 해양수산 협력센터 · WTO 수산보조금 협정
	해양안보	· 태도국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를 통해 해양 치안역량 강화
	보건	· 보건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이슈 대응 협력 ·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 나눔의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업	· 농식품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
	지역개발	·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마을환경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금융	· 새마을금고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마을 자조금융 설립 지원 · 디지털 전환 등 새마을금고 업무 고도화를 통한 금융 분야 역량 강화

자료: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 저자 정리.

■ [연결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연결성 재활성화'를 위한 13가지 행동계획을 발표함.

- 한국과 태도국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물적·디지털 연결성을 증진하고, 인적·문화 교류 및 외교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것을 약속함.
- [인적·물적·디지털 연결성 증진] △항공 및 해상 운송 인프라 구축 △ICT 연결성 강화 △한-태도국 무역투자 추진 프레임워크 △중소기업 지원 정책역량 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디지털 분야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태도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10)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SGL)를 통해 새마을운동 초청연수사업을 진행해왔으며, 46개 회원국 중 태도국은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키리바시가 회원국임(<https://www.saemaul.or.kr/home/?mode=earth>, 검색일: 2023. 6. 2).

-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 한국은 태평양 인프라 이니셔티브(Pacific Quality Infrastructure Initiative)와 태평양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Pacific E-commerce Initiative)를 주목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힘.¹¹⁾
- [한-태도국 교류 증진] 한국과 태도국은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하는 한편, 외교적 인프라 확충 및 정례적 회의체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갈 계획임.
 - [인적·문화 교류] 한국은 △태도국 인사 방한 초청 확대 △스포츠 동반자 및 선수 초청 합동훈련 프로그램 △스포츠 행사가 및 지도자 교육 확대 △해양수산 전문가 연수제도 △해양수산 분야 관계자들간 교류 확대 △언론인 교류 등을 통해 한-태도국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 [외교 강화] 한국은 태평양 지역 내 공관 추가 개설(주마셜제도 상주 공관 개설 검토 중) 등 대태도국 외교 인프라를 확충하고,¹²⁾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격년 정례화를 통해 태도국과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모색해 나갈 예정임.

표 4. 연결성 재활성화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의제	행동계획	주요 내용
인적·물적 연결성 및 디지털 연결성 증진	연결성 촉진	· 항공 및 해상운송 협력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ICT 연결성 촉진	· 태도국 내 ICT 연결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한-태도국 무역투자추진 프레임워크	· 한국과 PIF 간 무역투자추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위기에 공동 대응
	중소기업 지원정책 역량 강화	· 태도국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태도국 내 중소기업 생태계 촉진 · 인프라 및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에 대한 추가적 협의 계획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 태도국의 지리적 거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도입 및 가속화 지원
	디지털 분야 장관회의 개최	· 태도국 디지털 분야 장관 초청 및 최초의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 계획
한-태도국 교류 증진	태도국 인사 방한 초청 확대	· 해외 고위인사 초청 및 외교관의 한국 언어문화연수 등 초청사업 강화
	스포츠 발전 지원	·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 선수 초청 합동훈련 프로그램 등 교류 확대를 통한 태도국 스포츠 역량 강화 · 태도국 스포츠 분야 역량 강화
	일반 연수제도	· 투발루에 일반 연수제도 도입 ·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에 기여
	해양수산 네트워크 강화	· 해양수산 국제 컨퍼런스의 정례적 개최 · 해양수산 분야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언론인 교류	· 언론인 교류사업을 통한 양국간 언론 분야 네트워크 구축
	외교 인프라 강화	· 한국-니우에 수교 · 태도국에 공관 추가 개설 예정(주마셜제도 상주 공관 개설 검토 중)
	대태도국 외교 강화	· 한-태도국 외교장관 회의 2년 주기로 정례화 · 타 국가들과 대태도국 협력 및 지원 지속

자료: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 저자 정리.

11) 태평양 인프라 이니셔티브(Pacific Quality Infrastructure Initiative)와 태평양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Pacific E-commerce Initiative)는 '태평양 무역을 위한 원조전략 2020~2025'의 4대 중점과제에 속함[Pacific Islands Forum(검색일: 2023. 6. 2)].

12) 현재 태도국 내에 설치된 한국대사관은 주피지대사관과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두 곳이며,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태도국 공관을 추가 개설하여 외교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나. 양자회담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정상회의에 참석한 태도국 10개국 정상 모두와 개별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한국과 10개국 정상들은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 △인적 교류 등 태도국의 주된 관심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함.
- [키리바시] 윤 대통령은 키리바시가 태도국 중 조업량 기준 한국의 최대 원양어업 어장으로서 수산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였으며, 타네스 마야마우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해양수산 및 보건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힘.
 - 키리바시는 광대한 EEZ를 보유한 수산자원 부국으로, 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참치 어획량 중 절반가량을 차지함.¹³⁾
- [통가] 태도국 중 최초로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통가는 디지털, 식수사업,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힘.
- [투발루]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의 섬 중에 2개가 이미 침몰되어 기후변화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로,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수산 분야에서 특별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바누아투]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바누아투의 이스마엘 칼사카우 총리는 바누아투 내 항만개발 사업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함.
- [파푸아뉴기니(PNG)] 석유, 금,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PNG는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 및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는 한편, PNG 포트모르즈비 내 KOICA 사무소 재개소를 요청함.
 - 한편 박진 외교부장관은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동하고, '한-파푸아뉴기니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함.¹⁴⁾
- [쿡제도] 올해 PIF 의장국인 쿡제도와는 망간, 철, 니켈 등 심해저 자원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함.
- [마셜제도] 윤 대통령은 주마셜제도 상주 공관 개설을 검토 중임을 밝혔으며, 데이비드 카부아 대통령은 해수온도차 발전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힘.
- [솔로몬제도]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이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윤 대통령은 공무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대학역량 강화 등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 [니우에]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간 태도국 중 유일하게 비수교국이었던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향후 개발협력과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함.
- [팔라우] 수랭걸 힝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은 인적 교류, 개발협력, 재생에너지 및 IT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양 정상은 직항편 재개를 통한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함.

13) 해양수산부, 「해수부, 키리바시와 수산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6. 2).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니우에 간 외교관계 수립」 14개 태도국과 전체 수교 완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6. 2).

■ 10개국 정상 양자회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PIF 사무총장,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자치정부 대통령,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 대통령, 사모아 천연자원·환경장관, 나우루 보건의료부 장관, 피지 부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짐.

- [PIF] 헨리 푸나 PIF 사무총장은 한 총리와의 면담에서 기후변화 및 기술 분야의 협력과 더불어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싶다고 밝힘.
- [뉴칼레도니아] 한 총리와 루이 마푸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 대통령은 양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뉴칼레도니아는 세계 4위의 니켈 생산국(mine production)¹⁵⁾으로, 한국은 뉴칼레도니아로부터 니켈 원광을 매년 약 300만 톤 정도 수입하고 있음.¹⁶⁾
- [피지, 사모아, 나우루] 피지 부총리, 사모아 장관, 나우루 보건의료 장관과는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를 공통적으로 논의했으며, 나우루 보건의료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힘.

표 5. 양자회담의 주요 내용

국가	주요 내용
키리바시	· 지식공유, 역량 강화 등 한국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희망 · 어촌 특화개발 등 해양수산 협력 희망 · 무상원조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희망
통가	· 디지털, 식수사업,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등 개발협력 확대 기대
투발루	· 통신장비 개선, 기후변화 대응(수소 추출), 탈탄소 해운업 등 해양수산 분야 협력 희망
바누아투	·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분야 협력 강화 약속 · 바누아투 내 각종 항만 개발사업에 한국 참여 요청
파푸아뉴기니	· 개발협력 및 한국 제조업 기업의 투자와 진출 확대 희망 · PNG 포트모르즈비 내 KOICA 사무소 재개소 요청
쿡제도	·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심해저 자원 개발협력 요청
마셜제도	· 표층수와 심층수 온도차를 활용한 해수온도차 발전사업에 한국의 참여 요청
솔로몬제도	·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국립대 해양학과 등 대학역량 강화 지원 등 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약속
니우에	· 한-니우에 수교(5. 29) · 개발협력 및 기후변화 분야 중심 협력 강화 약속
팔라우	· 인적교류, 개발협력 분야 협력 확대 기대 · 직항편 재개를 통한 교류 활성화 필요성 공감 · 재생에너지 및 IT 등의 분야 협업 기대 · 한국기업의 도로항만 건설, 통신 IT 분야 진출에 대한 관심 요청

자료: 대한민국 대통령실 양자회담 브리핑 저자 정리.

15) USGS 홈페이지,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3"(검색일: 2023. 5. 31), 2022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순임.

16) KOMIS 홈페이지(검색일: 2023. 6. 1).

3. 평가 및 시사점

■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였음.

- 우리 정부가 한국판 인태 전략의 협력대상지로 태도국을 선정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정부는 2022년 12월 한국판 인태 전략 보고서에서 태도국의 최대 안보위협인 기후변화를 포함해, 태도국의 실질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¹⁷⁾
- 태도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개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는 기후변화, 재해 대응, 해양 환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글로벌 기후·환경 현안에 대한 한국의 관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태도국은 UN 내 군소도서개발국 간의 집단외교 및 결속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기후외교를 주도해 온바, 한국이 기후외교 확대에 있어 협력해야 할 주요 파트너로 꼽힘.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의 한-태도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은 향후 한-태도국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2008년 ‘한-PIF 협력기금’을 설립해 대태도국 ODA를 지원하고 2011년부터 한-태도국 외교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나,¹⁸⁾ 경제적 이해가 맞물린 수산 분야를 제외하면 한-태도국 간 협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음.
 - 2021년 한국의 대태도국 ODA 규모는 약 0.7%에 불과하며, 그중 34%가 피지에 편중되어 있음(그림 1 참고).
- 이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양측간 협력 비전을 명시한 정상선언과 구체적 사업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한-태도국 협력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한국의 대태도국 ODA 및 한-PIF 협력기금 확대 △한-니우에 수교 △태도국 내 현지 신규 공관 개설 추진 △한-태도국 인적·문화 교류 확대 추진은 한-태도국 간 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한국이 태도국의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을 지지하고 행동계획에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태도국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임.
 - 태도국은 ‘인도태평양’을 ‘쿼드(Quad) 국가들이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해 고안한 전략’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내러티브로 ‘푸른 태평양’을 주장해왔음.¹⁹⁾

17) 외교부(2022. 12. 28),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 15(검색일: 2023. 6. 5).

18) 당초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는 3년 주기로 개최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음.

19) Morgan, Wesley(2020), “Oceans Apart? Considering the Indo-Pacific and the Blue Pacific,” *Security Challenges*, Vol. 16, No. 1.

- 태도국이 ‘인도태평양’ 개념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한-태도국 협력의 무대를 ‘인도태평양’이 아닌 ‘태평양’으로 명시하고 PIF의 역할과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을 강조함으로써 태도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한-태도국 디지털 장관회의 △2023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태평양도서국 산림 투자 진출 및 협력 확대를 위한 기업 세미나 등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었던 각종 부대행사들 또한 한-태도국 간 고위급 인사·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10명의 태도국 정상 모두와 개별 양자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PIF 간 다자협력을 넘어 국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양자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태도국은 한국의 원양어업 산업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해저자원 개발 및 핵심광물을 포함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협력할 잠재력이 높아 향후 양자 차원의 협력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정상회의가 일회성 성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태도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태도국 간 파트너십을 지속·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나가야 함.

-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²⁰⁾ 한국 인태 전략의 목표는 전략 경쟁 차원이 아닌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기여를 높이는 데 있으며, 태도국이 한국 인태 전략의 주요 파트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음.
- 태도국은 강대국간 전략 경쟁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으며, 기후변화, 해양환경·수산자원 관리 등 태도국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파트너를 희망하고 있어, 패권 경쟁의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은 태도국에 편안한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음.
-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 강화 의지가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행동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태도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인 기후변화 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태도국의 기후 외교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태도국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기후변화·에너지 △해양환경·수산 △디지털 등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중장기 협력 전략을 구축하고, 대태도국 ODA와 한-PIF 협력기금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함.
- 한-PIF 협력 주무부처인 외교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중심이 되어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한-태도국 정례 실무협의체를 개최함으로써 태도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나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정부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ODA 2배 증액 계획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나, 현재 대태도국 ODA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대태도국 ODA를 더욱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피지에 집중된 협력대상국 또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20)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간 경쟁 현황에 대해서는 박나연, 김영선(2022),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2-07을 참고하기 바람.

- 현재 태도국 내 설치된 한국 공관(피지, 파푸아뉴기니) 모두 멜라네시아에 있고, 신규 개설을 고려 중인 마셜 제도 공관은 마이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만큼, 폴리네시아 지역에 추가 공관을 개설해 태도국 3개 권역간 균형 있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리적 권역 및 우선협력 분야별로 거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거점국과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14개국에 대한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함.
- 한-PIF 간 다자협력과 한-태도국 양자협력 외에도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BP: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등 태도국을 둘러싼 소다자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태도국 협력을 보다 다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BP)은 2022년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주도로 출범한 태도국 협력 협의체로, 한국은 2022년 11월 PBF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음.²¹⁾
- 한국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태도국과의 교류 역사가 짧으므로, 남태평양에 대한 국내 연구 및 학자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태도국과의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KIEP**

21)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2. 11. 13), 「프놈펜서 한미 정상회담…“빈틈없는 공조·연합방위태세 강화”」(검색일: 2023. 6. 7).